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관한
구조모형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최 동 숙

최
동
숙

지도교수 이 병 숙

2
0
1
9
년
8
월

2 0 1 9 년 8 월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관한 구조모형

지도교수 이 병 숙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 0 1 9 년 8 월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최 동 숙

최동숙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박 회 옥

부 심 이 병 숙

부 심 문 경 차

부 심 이 은 숙

부 심 전 은 영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2 0 1 9 년 8 월

감사의 말씀

저의 논문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결과가 있도록 때로는 냉철하게 끝까지 지식을 넓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병숙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예리한 지적으로 논문의 틀을 바로 잡아 이끌어주신 심사위원장 박희옥 교수님, 진정성 있는 조언으로 힘을 주신 문경자 교수님, 일일이 세심하게 검토하고 챙겨주신 이은숙교수님, 먼 곳에서도 세세한 부분을 검토하여 깨우침을 주신 전은영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학위논문을 위해 많은 시간을 배려 해 주신 경북과학대학교 김현정 총장님, 언제나 부드러운 말씀으로 학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박선애 학부장님과 힘들 때마다 따뜻한 응원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간호학과 모든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큰딸을 응원하고 챙겨주시다 저 멀리 하늘로 가신 그리운 엄마, 말없이 믿어주시는 아버지,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며느리를 이해해주신 시부모님, 가까이서 변함없는 조력자 남편 전현욱님, 밝게 잘 자라준 아들 재범이와 준익이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항상 누나에게 힘이 되었던 동생 문기, 말 한마디가 고마운 올케 조순주, 언니의 빈자리를 챙겨준 동생 현미, 좋은 인연으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연구의 설문조사에 흔쾌히 협조해주신 요양원 어르신들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마지막까지 든든한 지지가 되었던 한정원교수님, 홍경숙교수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지만 소중한 인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학문하는 사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2019년 8월

최 동 숙 드립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용어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노인의 행복	6
2.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델	9
3. 본 연구의 개념적 틀	11
III. 연구방법	20
1. 연구설계	20
2. 연구대상	20
3. 연구도구	21
4. 자료수집	23
5. 자료분석	24
6. 윤리적 고려	25
IV. 연구결과	26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6
2. 대상자의 요양원 이용 특성	28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생변수 점수	30
4. 대상자의 요양원 이용 특성에 따른 외생변수 점수	32
5. 주요 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34
6.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 및 다중공선성 분석	36
7. 구조모형의 검증	38

8. 연구가설의 검증	47
V. 논의	48
VI. 결론 및 제언	53
참고문헌	55
부록	68
영문초록	80
국문초록	83

표 목 차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
표 2. 대상자의 영양원 이용 특성	29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생변수 점수	31
표 4. 대상자의 영양원 이용 특성에 따른 외생변수 점수	33
표 5. 주요 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35
표 6.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 및 다중공선성 분석	37
표 7. 잠재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성 분석	41
표 8.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및 평균분산추출지수	42
표 9.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43
표 10.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45
표 11. 구조모형의 직·간접 및 총 효과 분석	46

그림 목 차

그림 1.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델	11
그림 2. 본 연구의 모형	16
그림 3. 가설적 모형	18
그림 4. 잠재변수의 측정모형	40
그림 5. 구조모형의 경로	4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은 효 규범 아래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어 여성의존적인 돌봄 형태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핵가족화, 효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간으로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서 노인돌봄 환경은 자연스럽게 요양시설 입소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하은호, 이영희, 2004).

요양시설 중의 하나인 요양원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중점을 두면서 노인의 신체적 건강을 향상하고 이들의 잔존능력을 유지하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다(Fagan, 2003; Roth, 2005). 이에 따라 노인들은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요양원이라는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Chao et al., 2008; Kao, Travis, & Acton, 2004; Tremethick, 2001).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노인이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는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게 된다(박선희, 김정, 2015). 따라서 노인 돌봄에 있어 노년기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접근이 포함되어야 하고(Torges, Stewart, & Nolen-Hoeksema, 2008), 또한 이들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신적 영역의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개별화된 간호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박민정, 서은영, 이정면, 2013).

최근 인간의 강점과 희망, 행복감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긍정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인간의 긍정적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eligman, 2002). 이와 같은 긍정 심리학의 관점을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긍정 심리학의 통합적 설명모델에서 살펴보면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으로 설명된다(권석만, 2009). 이 중 상향이론은 여러 일상생활 경험 중에

서 가족이나 친구와 상호작용에 있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경험이 행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Ryff, 1997), 하향이론은 성격적 요소가 행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통합적 설명모델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성격 특성이 생활사건에 대한 심리적 과정 및 행복에 영향을 주게 되고, 반면에 생활사건들이 심리적 과정을 통해 그 의미가 부여되어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상향이론과 하향이론 및 심리적 과정의 매개모델을 포함하는 구조적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요양원 노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개인의 성격특성은 자기조절(홍희영, 최은영, 2017), 생활사건은 여가활동(Slegenthaler, 1996; 김정현, 전미애, 2018)과 요양원 서비스만족도(이선미, 원지성, 2015), 긍정적 심리과정은 즐거움(이귀옥, 2013)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행복에 관한 통합적인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상향이론과 하향이론 및 긍정 심리학의 긍정변수를 이용하여 심리적 과정의 매개모델을 포함하는 구조적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기조절은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Karoly, Ruchman, Okun, Lutz, Newton, & Fairholme, 2005), 행복한 사람은 삶에 대해 자기 통제감이 높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며, 외향적 성격을 가진다(Myers & Diener, 1995). 또한 노인에게 있어 다양한 환경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적응을 조절하는 영향력 있는 주요변수라 할 수 있다(Grundy, 2006).

여가활동은 노동시간을 제외한 의무감이 없는 선택적인 시간들의 자유와 휴식을 의미한다(김윤정, 2013).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화하며, 재미와 긍지와 같은 긍정적 기분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오현옥, 2011; Hidi, 2006). 삶의 여건의 또 다른 요인인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요양원 노인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다(변용만, 2008). 이러한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힘들고 괴로울 때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하여 위로와 도움을 받음으로서 노인의 일상생

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석소현, 최진이, 2012). 따라서 요양원 서비스 만족도는 행복을 증진하는데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즐거움은 재미있는 삶을 통하여 마음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김영남, 2012), 즐거운 경험을 자주 그리고 잘 누리는 노인이 행복하다고 보고되었다(Fredrickson, 2008). 따라서 즐거움은 일상의 생활경험에 필수적 요소이며(임지룡, 2015), 동시에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은 긍정 심리학을 배경으로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요인이다.

행복에 대한 통합적 설명모형을 적용한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주관적 안녕감 영향요인 연구(이영신, 2013),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 연구(조금이, 박현숙, 2011)를 수행하였고 기독교인의 행복에 대한 연구(김문숙, 2013)로 상담이론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현재까지 노인의 행복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양원 노인을 대상으로 긍정 심리학의 자기조절, 긍정 경험의 즐거움의 변수들을 포함하여 행복의 총체적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적 관점에서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델에 근거하여 자기조절, 여가활동,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즐거움을 주요변수로 적용한 구조모형을 구축 및 검증을 통해 요양원 노인들의 행복을 주는 변수를 규명하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대한 통합적인 간호중재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에 대한 통합적 설명모델(권석만, 2009)을 기반으로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요양원 노인의 자기조절, 여가활동,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즐거움의 변수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 2) 가설적 모형간의 부합도를 검정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예측모형을 구축한다.
- 3)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확인하여 그 상대적 중요도를 규명한다.

3. 용어정의

1) 행복

- (1) 이론적 정의: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과 일상의 경험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 개인의 욕구 충족감을 포괄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Diener, 1984).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Kozma와 Stones (1983)가 개발한 행복 도구(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 Foundland Scale of Happiness [MUNSH])를 근거로 장혜경 (1998)이 번안한 노인 행복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자기조절

- (1) 이론적 정의: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신체, 감정, 자원을 기능적으로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치 있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과 행동을 포함한다(Leventhal, Diefenbach, & Leventhal, 1992).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Kendall과 Wilcox (1979)가 개발한 자기 통제력 평정표(Self-Control Rating Scale [SCRS])를 이순규(1994)가 번안한 자기조절능력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여가활동

- (1) 이론적 정의: 노동, 가족, 사회의 의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오락이나 지식획득을 위한 활동을 하고, 사회참여와 창조적 능력의 실현을 위하여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Dumazedier, 1974).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eard와 Ragheb (1980)이 개발한 여가만족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를 노미라(2007)가 노인의 여가활동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여가활동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 (1) 이론적 정의: 요양원 노인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서비스와 실제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정도를 의미한다(Zimmerman, 2003).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김동성(1998)이 구성한 노인시설생활만족도를 박선영(2007)이 수정·보완한 요양시설 서비스만족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즐거움

- (1) 이론적 정의: 신체활동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열정, 좋아함, 재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Oh, Fiore, & Jeoung, 2007).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Diener 등(2009)이 개발한 긍정 및 부정적 경험 척도(Scale of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SPAN])중 즐거움의 척도(천덕희, 2013)로 요양원 노인의 긍정적 정서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행복

행복(happiness)은 시대와 문화 및 학자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지만 개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평가와 정서 경험을 기본으로 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의미한다(Park & Peterson, 2009). 최근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 삶의 만족도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개념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Alexandrova, 2005). 행복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사회 인 구학적 요인과 행복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1970년 후반에는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심을 보이면서 우울과 불안, 공포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윤명숙, 이묘숙, 2012).

행복은 고대 사상 쾌락주의적 이론과 자아실현적 이론을 기초로 하여 긍정 심리학으로 발전되었다(Seligman, 2002). 긍정 심리학은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기능 상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서 보다 더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또한 긍정 심리학은 행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강점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간의 보다 긍정적인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것이 목 적이다(Seligman, 2002;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14). 따라서 긍정 심리학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인류에게 가장 큰 안녕감과 만족, 그리고 풍성한 삶을 갖도록 해주는 삶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다(Compton, 2007). 행복은 긍정 심리학에서 쾌락주의적 입장을 반영하는 즐거운 삶이고,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며 살아갈 때 실현하며 긍정적 정서의 체험은 주관적인 심리 상태로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Seligman, 2002). 즐거움은 긍정적 정서의 외향성이나 자존감, 공감과 같은 성격적이고 인지적인 요인으로 타인의 좋은 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행복의 긍정 효과를 나타내었다(임낭연, 신지은, 홍성우, 서은국, 2013).

행복은 객관적인 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권석만, 2009), 기초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소득보다 개인이 속한 시대적 상황과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 주관적인 심리현상이 작용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황명진, 심수진, 2008). 또한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고, 개인의 강점과 미덕을 발휘하면 행복을 증진시킨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14). 특히 노인에게 있어 행복에 대한 경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Sin & Lyubomirsky, 2009), 노년기에는 지혜와 자기조절이 증가한다고 긍정 심리학의 메타분석연구에서 보고하였다(Carstensen, Isaacowitz, & Charles, 1999).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결혼상태, 직업 등과 심리적 또는 성격적 요인으로 낙관성, 외향성, 긍정적 인간관계, 정서적 안정성, 자존감이 주요한 변인으로, 행복은 개인 스스로 발견하기 때문에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보다 심리적 또는 성격적 요인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권석만, 2009). 더불어 노인대상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자기조절능력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노인의 심리에 있어 긍정적 안정감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Blazer, 2003).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가 높고 부정적인 정서가 낮으며 부정적인 정서가 낮을수록 노년기의 긍정적인 시각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Watkins, 2004; Wong, Woo, Hui, & Ho, 2004).

노인의 행복은 급속한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 의학의 발달에 따른 삶의 방향 변화,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있다(김종순, 오세숙, 윤소영, 2016). 따라서 노인에게 있어서 행복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것의 만족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이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생에 걸친 삶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김정미, 채경선, 2018). 노인의 긍정적인 감정은 행복, 만족, 기쁨 등이 정신적인 병리현상을 완화 및 제거하게 만드는 수단이며(김세영, 2016),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 자원을 재구축하는 수단으로 매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Kozma & Stones, 1983).

이러한 근거로 볼 때 노인은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및 일상 활동의 범위와 영역이 줄어들면서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김의철, 김명언, 박영신, 유호식, 이건우, 2000). 특히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 은 힘들고 괴로울 때 만족스러운 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위로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노인의 행복을 증진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안병욱, 2017). 이러한 노인에게 있어 서비스만족도는 이용자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인, 신학진, 2009)고 하였다.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서비스만족도는 노인의 현재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상태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기윤, 2011). 노인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면서 심리·정서적 요인의 열정과 긍정적 정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이귀옥, 2013). 따라서 여가활동은 노인의 사회 활동 중 성공적 노화로 이끌어가는 가장 영향력 있는 활동으로 노인의 고독감과 같은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김경배, 2017).

노인의 행복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적인 면(Diener & Oishi, 2000), 자기조절 대처능력(Fredrickson & Joiner, 2002), 행복 측정(김명소, 한영석, 2006; 황명진, 심수진, 2008), 행복요인(임은기, 정태연, 2009),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조우홍, 이동수, 2008), 행복감의 예측요인(Diener, 2012), 여가활동 참여(이귀옥, 2013)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문헌들을 통하여 노인의 행복은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 생활경험을 포함하는 것과 긍정심리를 통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위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요양원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델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델은 행복에 대한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이다(권석만, 2009). 이 중 행복의 상향이론은 행복이 기쁘거나 슬픈 경험들의 합에 의해 도출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수준을 판단할 때, 순간적인 기쁨과 고통을 합하여 심리적 계산을 통하여 행복한 순간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다(권석만, 2009; Diener, Sandvik, Pavot, & Fujita, 1992; Diener, 2002). 예를 들면, 소득증가로 좀 더 윤택해지면 만족감이 증가되고, 여가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즐거움, 서비스만족의 유대감 및 체험들이 모여서 생활사건에 대한 삶의 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삶의 생활사건의 결혼, 직업, 종교, 재정상태, 여가활동 등으로 인해 기쁜 순간들을 더 자주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더 행복해 질 수 있다(권석만, 2009).

행복의 하향이론은 개인의 행복한 성격으로 인해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론이다(Costa & McCrae, 1980). 하향이론에서는 안정적인 개인의 내적 특성, 예를 들면, 개인의 유전적 기질, 성격, 정서 성향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유전적 기질이나 성격은 삶의 경험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인간관계에서 비교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함으로써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석만, 2009). 행복은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데 편차가 존재한다(허승연, 2009). 이 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은 성격 특성, 또는 인생경험들을 개인의 삶에 대한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더라도 노화의 인지기능 감퇴와 특성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김종임, 2015).

통합이론은 행복이 성격적 요인에 의해 하향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활사건들을 통해서 상향적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권석만, 2009; 허승연, 2009). 즉, 두 이론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통합적 설명모델로 발전하게 되었다

(권석만, 2009). 행복은 성격특성과 환경의 여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권석만, 2009). 개인의 심리적 반응은 대부분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하기도 하고, 동일한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이러한 행복은 개인의 삶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성격적 요인이 외부환경에 대한 의미부여와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권석만, 2009).

행복은 심리적 과정을 중요한 요인으로 즐거운 삶과 밀접한 관련 있는 개념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많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 있다(조금이, 박현숙, 2011). 또한 반복적인 행복 경험은 심리적 과정의 변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성격과 태도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행동을 변화 시킴으로써 생활사건에도 영향을 주며(권석만, 2009), 행복한 사람들은 미래의 삶에 대한 여러 영역 중 결혼, 친구관계, 직업 수행 및 직업성취도 수입, 정신건강, 신체건강 등에서 성공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통합적 연구를 시도한 선행연구들의 행복은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과 긍정적 생활사건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긍정적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행복 때문에 유연성이 향상되어 생활사건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복에 대한 연구는 최근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통합적 설명모델이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행복에 대해 외부환경적인 요인과 내적인 심리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행복의 선행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들 선행 요인이 생활사건에 대한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에, 개인은 그가 속하는 집단 국가, 사회, 가족 등에 따라 사람의 전반적 여건이 크게 달라진다(권석만, 2009). 또한 그 여건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생활사건들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합적 설명모델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격특성으로 자기조절, 생활사건으로 여가활동과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를 선정하였고, 이

들 선행변인이 심리적 과정의 즐거움을 선정하여 최종 행복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자기조절, 여가활동, 즐거움을 주요개념으로 하는 통합적 설명모델은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구조모형 연구에 적합한 이론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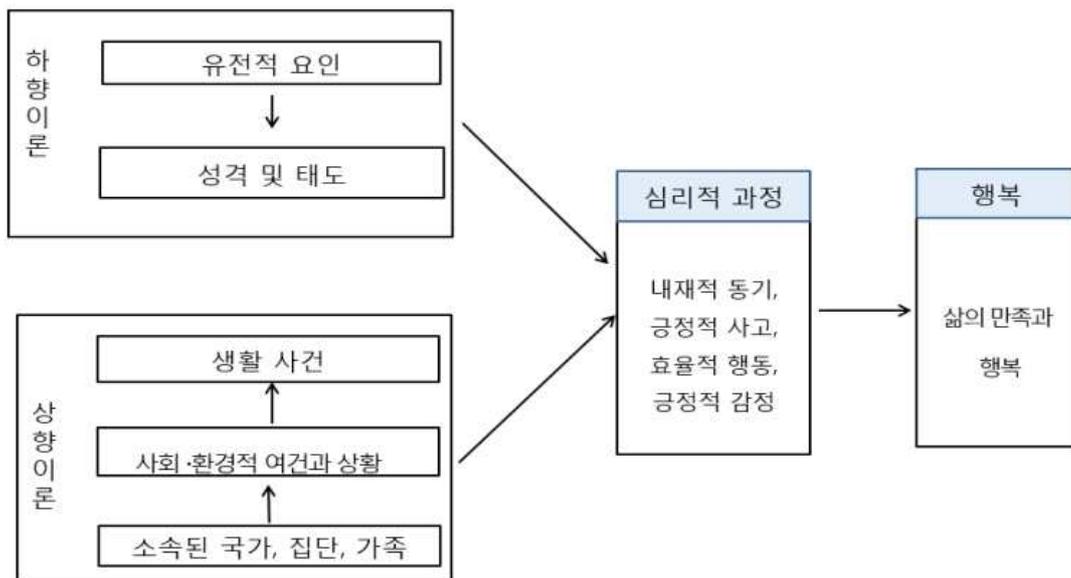


그림 1.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델(권석만, 2009)

3. 본 연구의 개념적 틀

1) 본 연구의 모형

본 연구에서는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관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적 설명모델(권석만, 2009)을 기반으로 주요변수를 추가하여 연구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대한 변수들은 성격요인으로 자기조절은 즐거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활사건으로 여가활동과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심리적 과정의 즐거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즐거움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적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심리적 과정의 즐거움은 매개효과로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구

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1) 자기조절

자기조절은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신체, 감정, 자원을 기능적으로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치 있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과 행동을 포함한다 (Leventhal et al., 1992). 이러한 자기조절은 개인 성격특성 관련요인으로 (강은경, 2013), 본 연구의 외생변수로 구성하였다. 노인의 자기조절은 개인의 특성 변인과 내·외적 자원이나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 차이가 있다(장유리, 이정남, 윤현숙, 김수영, 2008). 노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긍정 심리학적 개입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조절 및 자기조절능력이 변화된다고 보고하였다(Sin & Lyubomirsky, 2009).

노인에게 있어 자기조절의 영향으로 정신적 건강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김현미, 2013; 남현주, 이현지, 2005; 임연옥, 윤현순, 2017; 장유리 등, 2008; Neupert, Almeida, & Charles, 2007), 지각된 자기조절능력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노인의 심리 안정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Blazer, 2003).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성격, 자아존중감, 통제감과 같은 개인의 내면적 요인에서 생겨난다는 하향식 행복론 접근방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장유리 등, 2008).

또한 자기조절은 개인이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삶에서 조정자가 되는데 필요한 기술이고(Sanders & Mazzucchelli, 2013), 스트레스 상황에 완충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에 의해 증진될 수 있으며(장유리 등, 2008), 특히 노인들의 행복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이 있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나 외부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노인에게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성격특성의 자기조절은 요양원 노인들의 부정적 정서를 줄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어 행복의 영향변수로 선정하였다.

(2) 여가활동

여가활동은 노동, 가족, 사회의 의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오락이나 지식획득의 활동을 하고, 사회참여와 창조적 능력의 실현을 위하여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Dumazedier, 1974). 여가활동은 송해룡, 김찬원과 김원재(2012)의 연구에서 여성노인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경로를 추가하였다. 이는 사람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증진한다(김경식, 이루지, 2011). 노인에게 있어 여가활동은 막연하게 보내는 시간과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이 여가시간이다. 여가활동은 건강증진, 사회적 접촉과 사립의 기회의 증진, 사기와 생활 만족감 증진, 신체적·정서적 자신감 증진, 자립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노용구 등, 2008).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삶의 행복감을 추구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개인의 다양한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돕는 일차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용운, 2016). 또한 노인들은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유지, 재미와 보람, 사회적인 접촉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고(박미석, 2004),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신은영, 이인수, 2002; 전기숙, 2016). 이는 예술활동 참여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Fujiwara, 2013),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사회관계 활동 등이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남은영, 이재열, 김인혜, 2012). 따라서 여가활동은 사회적 활동 범위가 좁아진 요양원 노인에게 있어 행복감의 인식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외생변수로 고려하여(이효정, 양영애, 2012) 본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였다.

(3)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입소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Mainz, 2003). 요양원 노인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만족시키고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변용만, 2008). 이선미와 원지성(2015)의 연구에서 서비스만족은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외생변수로 추가하였다.

노인은 인지적으로 손상된 노화에서도 그들의 선호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는 돌봄과 서비스 경험에 대해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Kehyayan, Hirdes, Tyas, & Stolee, 2015). 노인은 지역사회 복지관의 시설서비스나 의료서비스만족을 통해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박종무, 송창현, 2000). 이러한 무료시설과 유료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서비스 만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석소현, 최진이, 2012), 또한 요양시설 서비스의 만족은 입소 노인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였다(Bowers, Fibich, & Jacobson, 2001).

요양원 노인의 서비스만족도는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고(금기윤, 2011), 노인에게 있어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 신학진, 2009). 노인은 시설의 전반적인 서비스만족을 느낄 때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금기윤, 2011), 서비스만족도는 시설입소 노인에게 있어 시설 환경은 입소 전보다 나으면 환경에 쉽게 적응한다고 보았다(Kowalski, 1981). 이에 따라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입소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의 만족 경험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키므로(김문실, 이승희, 2008),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즐거움

즐거움은 기쁨, 좋아함, 재미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과정으로 얻게 되는 일상 경험의 긍정적 정서 반응을 의미한다(Scanlan & Simons, 1992). 즐거움은 심리적 과정으로 신동일(2011)의 연구에서 체험이 즐거움의 하위요인인 재미에 유의한 영향이 있어 경로를 추가하여 행복관련요인으로 본 연구의 내생변수로 구성하였다.

즐거움은 긍정적 사건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조절과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긍정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향유하는 노력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Jose, Lim, & Bryant, 2012). 즐거움의 긍정적인 경험들은 일상의 순간에 경험하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충분히 음미하는 것으로 행복감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강화하였다(Bryant & Veroff, 2007).

즐거움은 사회적으로 유발된 긍정 정서라고 분류하였고, 이처럼 긍정 정서인 즐거움이 웃음 이외에도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ritton, Taylor, Berridge, Mikels, & Liberzon, 2006). 또한 즐거움은 경험이며,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더 자주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크게 가진다(임낭연 등, 2013). 즐거움은 좋아함, 즐김, 몰입, 재미, 유쾌, 기쁨 등 일상 속에서 행복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전현상, 2016; Hanin & Nieuwenhoven, 2016). 평소에 즐거움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즐거움’이라는 정서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지지적 정서 표현’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임낭연 등, 2013). 청소년기 신체활동은 체력과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신체활동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을 높인다(김은성, 안현균, 조남기, 2015). 신체활동을 수반한 다양한 운동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 및 즐거움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박인실, 김영환, 2011), 지속적 교과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수업몰입을 매개하는 변인(김옥자, 2017)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요양원 노인에 있어 신체활동을 통해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나 흥미는 심리상태를 긍정적으로 개선시키고(Wankel, 1993), 긍정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른 요인들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인특성과 사회·환경적 여건과 상황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효과 가설에 집중해왔고, 다수의 긍정심리 연구에서는 개인의 긍정 경험이 정서적 상태의 변화를 유발하므로 이것이 행복을 향상시키는 주된 영향 경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설명모델의 직접효과 가설과 더불어 즐거움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행복에 대한 외부환경적인 요인과 내적인 심리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행복의 선행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들 선행 요인이 생활사건에 대한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 개인에게 있어서 그가 속하는 집단 국가, 사회, 가족 등에 따라 사람의 전반적 여건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그 여건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생활사건들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석만, 2009). 이러한 생활사건들 역시 심리적 과정을 통해 그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 정서를 활용한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종합하면, 노인들의 행복 영향요인으로 성격특성의 자기조절과 생활사건의 여가활동,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그리고 심리적 과정의 즐거움이 있었다. 특히 즐거움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2009)의 통합적 설명모델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격특성으로 자기조절, 생활사건으로 여가활동과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를 선정하였고, 이들 선행변인이 심리적 과정의 즐거움을 선정하여 최종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설명하고자 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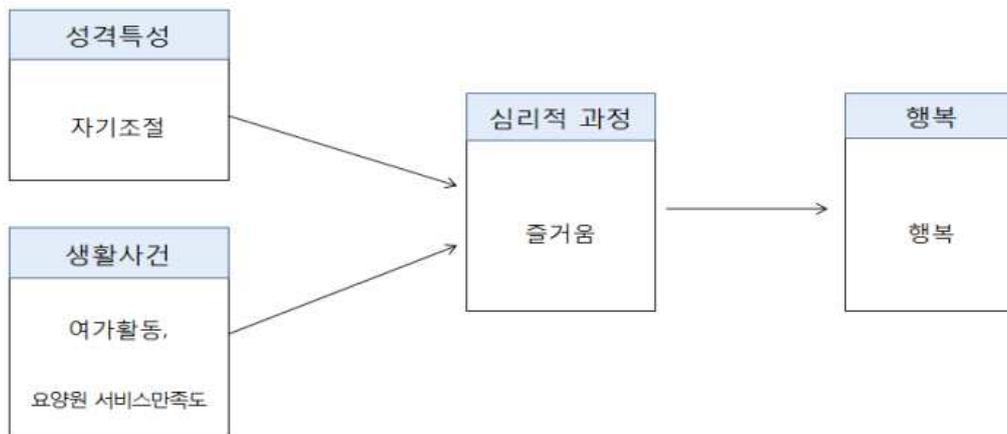


그림 2. 본 연구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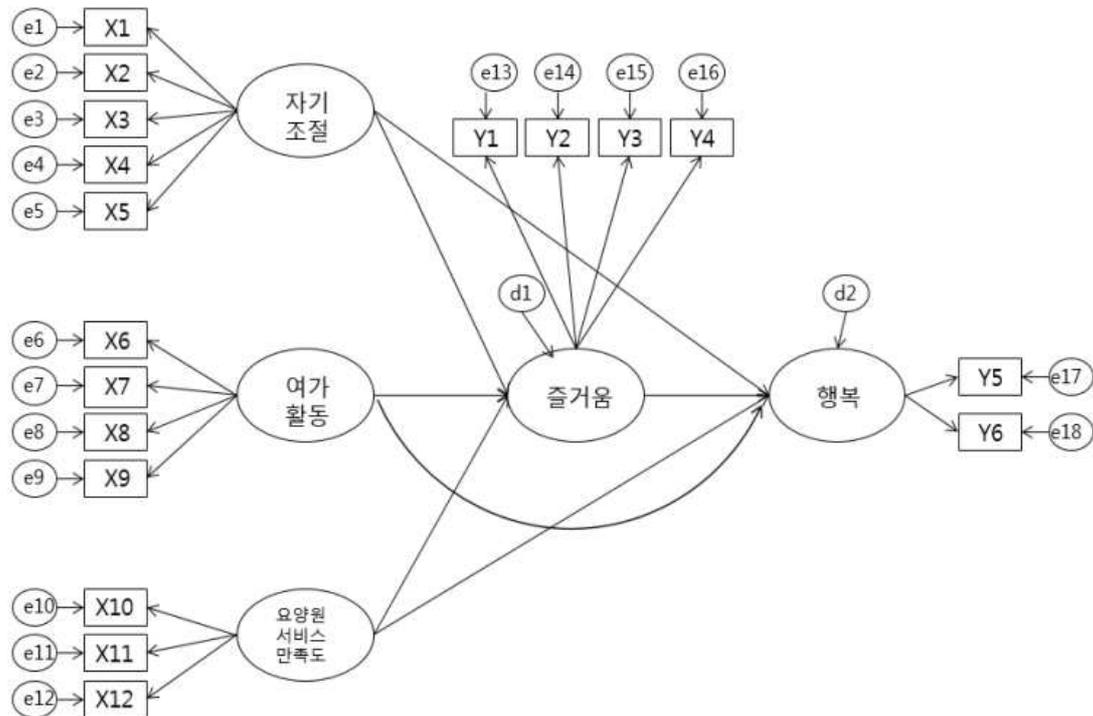
요양원 노인의 행복은 그들의 성격특성 및 생활환경적 요인에 대한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에 영향을 주게 되고, 반면에 크고 작은

생활사건들은 심리적 과정을 통해 그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성격 및 태도의 변화나 생활사건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행복이 개인적 선택이고 의도적 활동인 심리적 과정에 변화를 주어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요양원 노인은 여가활동,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를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고, 성격특성에서 자기조절로 긍정효과를 보이며, 즐거움으로 행복감이 향상되는 통합적 설명모델에 적합한 이론이다.

2) 가설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틀을 배경으로 자기조절, 여가활동,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를 외생변수로, 즐거움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기반으로 이론적으로 검증된 변수와 선행문헌의 고찰결과를 고려한 변수만으로 관련개념을 도식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자기조절, 여가활동, 요양원 서비스만족도의 3개 외생변수와 즐거움, 행복의 2개 내생변수로 구축하였다. 매개변수인 즐거움은 외생변수인 자기조절, 여가활동, 요양원 서비스만족도와 내생변수인 행복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그림 3). 외생변수는 모형내의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변수이며, 내생변수는 모형내의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변수로 한 번 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이다(우종필, 2016). 매개변수는 외생변수의 β 계수가 매개변수 추가시 유의미한 수준에서 무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매개, β 계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부분 매개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모든 측정변수의 오차항은 측정변수의 분산 중 잠재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며, 내생잠재변수의 오차항은 외생 잠재변수로부터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김계수, 2013).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그림 3).



X1: 주의성, X2: 침착성, X3: 집중성, X4: 규범성 X5: 대인관계,
 X6: 흥미요인, X7: 건강요인, X8: 사교요인, X9: 인정요인,
 X10: 일상생활서비스, X11, 의료서비스, X12, 시설환경서비스,
 Y1: 즐거움1, Y2: 즐거움2, Y3: 즐거움3, Y4: 즐거움4,
 Y5: 긍정행복감, Y6: 부정행복감.

그림 3. 가설적 모형

본 연구는 가설적 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7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즐거움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자기조절은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여가활동은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행복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자기조절은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여가활동은 행복에 정(+)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행복에 정(+)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즐거움은 행복에 정(+)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통합적 설명모델을 기반으로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표본 수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른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D광역시 소재 4개 요양원과 K도 소재 2개를 선정하여 기관의 승인 및 협조를 받았다. 구체적인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65세 이상 노인으로 요양원에 입소한지 6개월 이상인 자
- 2)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3) 현재 급성기 질환 상태가 아닌 자
- 4)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자
- 5)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점수가 24점 이상인 자

선정기준은 요양원에 입소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요양원에 입소하여 안정을 찾는데 평균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Brooke, 1989)이고, 인지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배제하기 위해 K-MMSE 점수가 24점 이상인 자로 한 것(강연옥, 2006)에 근거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일반적인 추정법인 최대우도법의 적당한 표본크기는 최소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이며, 표본크기가 4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우도법이 민감하게 되어 모델 적합도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표본크기는 150명~400명 정도가 적당하며, 일반적으로는 단일 기준치로 많이 사용되는 200명이 가장 적당한 표본의 크기이다(우종필,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270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 연구 참여 중단을 원했던 대상자 12명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19명을 제외하여 탈락률은 11.5%이었고, 총 239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표본의 크기는 적절하였다.

3. 연구도구

1) 행복

행복은 Kozma와 Stones (1983)이 개발한 행복 척도(MUNSH)를 근거로 장혜경(1998)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로 초기에는 긍정행복감 12문항, 부정행복감 12문항의 총 24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교수 2명과 요양원 원장 1인에게 의뢰하여 검토 후 단축하여 본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가 0.40 이하인 긍정행복감 4, 14, 21번 문항과 부정행복감 7, 8, 13, 18, 22번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이는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하여 감정에 대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흥미나 활동의 상실, 피곤, 집중력 상실 등으로(대한노인병학회, 2005), 요인 적재치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행복의 각 문항구성은 긍정행복감 9문항, 부정행복감 7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의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값으로, 부정행복감 문항 7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혜경(199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2) 자기조절

자기조절은 Kendall과 Wilcox (1979)에 의해 개발된 자기조절력 검사척도(SCRS)로 이순규(1994)가 번역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주의성 3문항, 침착성 3문항, 집중성 4문항, 규범성 5문항, 대인관계 5문항의 5개 하위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조절의 각 문항은 ‘아주 그렇다’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값으로, 부정문항 8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endall과 Wilcox (1979)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개발 당시 .9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3) 여가활동

여가활동은 Beard와 Ragheb (1980)에 의해 개발된 여가만족 척도(LSS)로 노미라(2007)가 번역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흥미요인 6문항, 건강요인 5문항, 사교요인 5문항, 인정요인 4문항의 4개 하위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가활동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4)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김동성(1998)에 의해 구성된 노인시설생활만족도로 박선영(2007)이 수정한 도구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일상생활서비스 8문항, 의료서비스 4문항, 시설환경서비스 7문항의 3개 하위영역,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양원 서비스만족도의 각 문항은 ‘매우 좋지 않음’ 1점부터 ‘매우 좋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양원 노인들이 인지하는 서비스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선영(200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5) 즐거움

즐거움은 Diener 등(2009)이 개발한 긍정 과정척도(SPANE)로 천덕희(2013)가 수정한 긍정적 경험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즐거움의 단일변수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즐거움의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양원 노인들이 인지하는 즐거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천덕희(20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D광역시에 소재 4개 요양원과 K도 소재 2개 요양원에 입소한 65세 이상 노인 총 27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되었다. 연구자는 설문조사를 하기 전 사전에 섭외된 요양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설문조사 일시에 대하여 상의 후 방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6개소의 요양원을 선정하여 해당기관 장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해당기관의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담당자의 소개 및 기관 게시판에 연구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부착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 설문 응답이 가능한 노인을 간호사로부터 추천받아 수집하였다. 대상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충분하여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을 올바르게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를 수락 받았다.

연구의 조사자는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 할 수 있고 질문내용에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간호대학원생 4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하였다. 연구보조원은 간호사로, 측정자간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연구보조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조사절차, 설문내용, 조사 시

의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연구자와 동일한 절차와 내용으로 설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훈련하였다. 특히 설문조사 중 강압적인 태도나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손상하는 언어나 개인정보에 대한 누출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교육하였다.

자료 수집 시 요양원 노인에게 먼저 자발적 참여 의사를 설명하였고 이때 조사에 응하겠다는 노인들에게만 설문을 하였으며, 노인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성급하게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상자와 대화식으로 질의 응답하여 부담감을 최소화하였으며 설문조사 중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알렸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대답을 연구 조사자가 표기하였으며, 작성시간은 1인당 30~40분 소요되었고,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은 IRB 승인 후 2019년 3월 12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에 대해서는 평균,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등 기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즐거움, 행복의 차이 검정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확인하였으며,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의 분석은 측정모형을 먼저 추정한 후 구조모형을 추정하였고,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념타당성,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및 법칙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데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χ^2 , χ^2/df , 잔차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표준적합지수(normal fit index [NFI]), 비교 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근차오차평균제곱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등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구조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회귀계수(B), 표준화계수(β),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임계치(critical ratio [CR]), p 값으로 확인하였고,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이용하였다. 구조모형의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의 비밀보장 등의 권리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거절하거나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후, 자발적 참여 의사에 대한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과 실제 분석과정에서 개인정보는 식별코드를 부여, 변경하여 통계처리 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코딩처리와 분석을 하였으며, 자료는 패스워드 잠금장치가 된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사물함에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연구종료 시점부터 3년간 보관 후 완전폐기 처분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NO. 40525-201811-HR-110-02)의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239명의 대상자 중에서 여성은 200명(83.7%), 남성은 39명(16.3%)으로 여성이 많았으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81세였다. 연령은 80~89세 이하가 123명(51.5%)으로 가장 많았으며, 69세 이하는 10명(4.2%)이었다. 학력은 중졸 이하가 91명(3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졸은 69명(28.9%), 무학/서당은 40명(16.7%), 고졸이상은 39명(16.3%)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생존유무는 사별 또는 이혼이 169명(70.7%)이었으며, 현재 살아계심이 70명(29.3%)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불교가 95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가 79명(33.1%), 무교가 42명(17.6%), 천주교가 23명(9.6%)이었다. 요양등급은 3등급이 162명(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1등급과 2등급이 77명(32.2%)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9)

특성	구분	실수(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39(16.3)	
	여성	200(83.7)	
연령	69세 이하	10(4.2)	80.94±5.98
	70~79세	87(36.4)	
	80~89세	123(51.5)	
	90세 이상	19(7.9)	
학력	무학/서당	40(16.7)	
	초졸	69(28.9)	
	중졸	91(38.1)	
	고졸이상	39(16.3)	
배우자 생존유무	현재 살아계심	70(29.3)	
	사별 또는 이혼	169(70.7)	
종교	무교	42(17.6)	
	불교	95(39.7)	
	기독교	79(33.1)	
	천주교	23(9.6)	
요양등급	1,2등급	77(32.2)	
	3등급	162(67.8)	

2. 대상자의 요양원 이용 특성

총 239명 대상자의 요양원 입소동기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노후를 위해서가 145명(60.7%),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가 94명(39.3%)으로 나타났으며. 이용부담은 자녀들 공동부담이 181명(75.7%), 정부지원이 38명(15.9%), 본인 및 배우자가 20명(8.4%)순으로 나타났다. 입소기간은 1년~3년 미만이 164명(6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가참여 시간(일)은 1시간~2시간이 154명(64.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여가참여 동기는 건강을 위해서가 169명(7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미와 오락이 41명(17.2%)이었다. 여가참여 활동 종류는 건강, 스포츠 활동이 146명(6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오락, 사교활동은 75명(31.4%)이었다. 요양원 노인에게 있어 질병은 관절염이 119명(49.8%), 고혈압이 79명(33.1%), 우울증이 49명(20.5%)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요양원 이용 특성

(N=239)

특성	구분	실수(백분율)
입소동기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	94(39.3)
	돌봐줄 사람이 없어 노후를 위해	145(60.7)
이용부담	본인 및 배우자	20(8.4)
	자녀들 공동부담	181(75.7)
	정부지원	38(15.9)
입소기간 (년)	1년 미만	22(9.2)
	1년~3년 미만	164(68.6)
	3년~5년 미만	42(17.6)
	5년 이상	11(4.6)
여가참여 시간 (일)	1시간 미만	58(24.3)
	1시간 이상~3시간 미만	154(64.4)
	3시간 이상	27(11.3)
여가참여 동기	건강을 위해서	169(70.7)
	취미와 오락으로	41(17.2)
	사회적 친교를 위해	13(5.4)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16(6.7)
여가참여 활동 종류	건강, 스포츠 활동	146(61.1)
	오락, 사교활동	75(31.4)
	봉사, 종교활동	18(7.5)
*질병명	고혈압	79(33.1)
	뇌졸중	15(18.8)
	당뇨병	48(20.1)
	관절염	119(49.8)
	호흡기계	18(7.5)
	심장질환	48(20.1)
	백내장/녹내장	13(5.4)
	소화기질환	13(5.4)
	전립선비대	15(6.3)
	우울증	49(20.5)
	암	9(3.8)
	기타	14(5.9)

*중복 응답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생변수 점수

대상자의 자기조절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요양등급에 따른 자기조절은 3등급이 3.55 ± 0.31 점, 1, 2등급이 3.46 ± 0.30 점이었으며, 3등급이 1, 2등급보다 자기조절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12, p = .035$). 대상자의 여가활동은 연령, 학력, 요양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 평균은 69세 이하 3.85 ± 0.39 점, 70~79세 이하 3.78 ± 0.31 점, 80~89세 이하 3.68 ± 0.34 점, 90세 이상 3.61 ± 0.32 점이었으며, 90세 이상보다 69세 이하가 여가활동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2.76, p = .043$). 학력에 따른 여가활동(일) 평균은 무학/서당 3.61 ± 0.36 점, 초졸 3.70 ± 0.38 점, 중졸 3.76 ± 0.29 점 고졸이상 3.79 ± 0.27 점이었으며, 사후분석결과 고졸이상 여가활동 그룹은 무학/서당, 초졸, 중졸 여가활동그룹에 비해 여가활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2.70, p = .047$). 요양등급에 따른 여가활동 평균은 3등급 3.76 ± 0.34 점, 1, 2등급 3.65 ± 0.31 점이었으며 1, 2등급보다 3등급이 여가활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42, p = .016$). 대상자의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종교에 따른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평균은 무교 4.06 ± 0.40 점, 천주교 4.08 ± 0.37 점, 불교 4.19 ± 0.32 점, 기독교 4.22 ± 0.34 점이었으며, 무교보다 기독교가 요양원 서비스만족도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2.89, p = .036$)(표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생변수 점수

(N=239)

특성	구분	자기조절		여가활동		요양원서비스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성별	남성	3.54±0.35	0.42	3.72±0.43	0.06	4.19±0.38	0.52
	여성	3.52±0.30	(.675)	3.72±0.31	(.955)	4.16±0.34	(.603)
연령	69세 이하	3.37±0.31	1.19	3.85±0.39	2.76	4.09±0.29	0.51
	70~79세	3.55±0.28	(.313)	3.78±0.31	(.043)	4.15±0.32	(.671)
	80~89세	3.51±0.30		3.68±0.34		4.17±0.38	
	90세 이상	3.54±0.44		3.61±0.32		4.24±0.26	
학력	무학/서당 ^a	3.43±0.43	1.49	3.61±0.36	2.70	4.11±0.43	1.63
	초졸 ^b	3.52±0.33	(.218)	3.70±0.38	(.047)	4.13±0.37	(.183)
	중졸 ^c	3.54±0.25		3.76±0.29	a,b,c <d	4.18±0.31	
	고졸이상 ^d	3.56±0.25		3.79±0.27		4.26±0.27	
배우자	유	3.55±0.28	0.94	3.76±0.32	1.26	4.15±0.33	-0.41
생존유무	무	3.51±0.31	(.346)	3.70±0.33	(.210)	4.17±0.35	(.679)
종교	무교	3.47±0.37	0.99	3.81±0.34	2.64	4.06±0.40	2.89
	불교	3.51±0.30	(.395)	3.69±0.34	(.051)	4.19±0.32	(.036)
	기독교	3.54±0.23		3.75±0.28		4.22±0.34	
	천주교	3.60±0.44		3.60±0.39		4.08±0.37	
요양등급	1,2등급	3.46±0.30	-2.12	3.65±0.31	-2.42	4.14±0.34	-0.85
	3등급	3.55±0.31	(.035)	3.76±0.34	(.016)	4.18±0.35	(.395)

4. 대상자의 요양원 이용 특성에 따른 외생변수 점수

대상자 여가활동은 여가참여 활동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가참여 활동 종류에 따른 여가활동 평균은 건강·스포츠활동 3.78±0.26점, 오락·사교활동 3.71±0.33점, 봉사·종교활동 3.29±0.50점이었으며, 사후분석결과 건강·스포츠활동의 여가활동을 하는 그룹은 오락·사교활동, 봉사, 종교활동 여가활동 그룹에 비해 여가활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20.20$, $p=.001$). 대상자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여가참여 시간(일), 여가참여 동기, 여가참여 활동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가참여 시간에 따른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1시간 이내 4.07±0.40점,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4.17±0.32점, 3시간 이상 4.38±0.26점이었으며, 사후분석결과 3시간 이상 여가참여 시간을 갖는 그룹은 1시간 이내 그룹에 비해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점수가 높았다($F=7.93$, $p=.001$). 여가참여 동기에 따른 여가활동 평균은 건강을 위해서 4.20±0.33점, 취미·오락으로 4.19±0.36점, 사회적 친교를 위해서 4.00±0.32점,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3.85±0.31점이었다. 여가참여 활동 종류에 따른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평균은 건강·스포츠활동 4.18±0.34점, 오락·사교활동 4.20±0.33점, 봉사·종교활동 3.89±0.38점이었으며, 사후분석결과 건강·스포츠활동 그룹과 오락·사교활동 그룹의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봉사·종교활동 그룹에 비해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점수가 높았다($F=6.67$, $p=.002$)(표 4).

표 4. 대상자의 영양원 이용 특성에 따른 외생변수 점수

(N=239)

특성	구분	자기조절		여가활동		영양원서비스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입소 동기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	3.54±0.31	0.81	3.69±0.36	-1.09	4.15±0.31	-.42
	돌봐줄 사람이 없어 노후를 위해	3.51±0.31	(.421)	3.74±0.31	(.277)	4.17±0.37	(.677)
이용 부담	본인 및 배우자	3.58±0.35	0.29	3.75±0.30	0.84	4.19±0.34	0.39
	자녀들 공동부담	3.52±0.31	(.748)	3.71±0.34	(.433)	4.173±0.35	(.678)
	정부지원	3.51±0.31		3.78±0.28		4.12±0.36	
입소 기간 (년)	1년 미만	3.53±0.46	0.29	3.64±0.49	1.05	4.28±0.36	1.48
	1년~3년 미만	3.50±0.29	(.831)	3.73±0.31	(.371)	4.17±0.35	(.222)
	3년~5년 미만	3.55±0.30		3.70±0.33		4.09±0.32	
	5년 이상	3.60±0.31		3.85±0.25		4.18±0.30	
여가 참여 시간 (일)	1시간 미만	3.48±0.38	2.00	3.72±0.40	0.01	4.07±0.40	7.93
	1시간 이상~3시간 미만	3.52±0.25	(.137)	3.72±0.32	(.992)	4.17±0.32	(.001)
	3시간 이상	3.62±0.42		3.72±0.23		4.38±0.26	a,b, <c
여가 참여 동기	건강을 위해서	3.53±0.30	2.53	3.74±0.28	1.91	4.20±0.33	6.36
	취미와 오락으로	3.59±0.26	(.508)	3.72±0.33	(.129)	4.19±0.36	(.001)
	사회적 친교를 위해	3.42±0.37		3.52±0.58		4.00±0.32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3.37±0.42		3.68±0.54		3.85±0.31	
여가 참여 활동 종류	건강·스포츠활동 ^a	3.53±0.28	2.34	3.78±0.26	20.20	4.18±0.34	6.67
	오락·사교활동 ^b	3.54±0.30	(.099)	3.71±0.33	(.001)	4.20±0.33	(.002)
	봉사·종교활동 ^c	3.37±0.53		3.29±0.50	b,c <a	3.89±0.38	c <a,b

5. 주요 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본 연구는 측정변수별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준치를 참고하여 요인적재치가 0.50 이하인 문항 또는 표준화된 잔차 값에서 문항들 간 절대값이 2.58 이상을 보이는 문항을 제거하는 방법(우종필, 2016)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식별에 대한 문제로 잠재변수는 3개 이상의 관측변수를 갖는 것이 좋으며, 기준보다 낮은 부하량이어도 연구에서 중요한 항목이고 삭제 시 구성개념의 본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우종필, 2016)는 문헌에 근거하여 행복의 주요변수에 기반한 선택 변수를 제거하지 않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에 자기조절은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용을 기준으로 주의성, 침착성, 집중성, 규범성, 대인관계 등의 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항목 합산하여 관측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문항 중 3, 5, 9, 11, 12, 13, 19번 7개 문항은 요인적재치가 낮아 집중타당도를 저해하고 있어 제거하였다. 여가활동은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용을 기준으로 흥미요인, 건강요인, 사고요인, 인정요인 등의 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항목 합산하여 관측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문항 중 2, 7, 9, 15, 16, 17번 6개 문항은 요인적재치가 낮아 집중타당도를 저해하고 있어 제거하였다. 요양원 서비스 만족도는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용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서비스, 의료서비스, 시설환경서비스 등의 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항목 합산하여 관측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문항 중 5, 6, 8, 13, 14, 15, 16번 7개 문항은 요인적재치가 낮아 집중타당도를 저해하고 있어 제거하였다. 즐거움은 단일 변수 4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행복은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용을 기준으로 긍정행복감, 부정행복감의 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항목 합산하여 관측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문항 중 5, 11, 13, 14, 16번 5개 문항은 요인적재치가 낮아 집중타당도를 저해하고 있어 제거 후 최종 모형분석에 사용하였다(표 5).

표 5. 주요 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N=239)

주요변수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수정 문항 번호 (수정 문항 수)	Cronbach's α
자기조절	전체	1 ~ 20(20)	1,2,4,6,7,8,10,14, 15,16,17,18,20(13)	.71
	주의성	1 ~ 3(3)	1, 2(2)	
	집착성	4 ~ 6(3)	4, 6(2)	
	집중성	7 ~ 10(4)	7, 8, 10(3)	
	규범성	11 ~ 15(5)	14, 15(2)	
	대인관계	16 ~ 20(5)	16, 17, 18, 20(4)	
여가활동	전체	1 ~ 20(20)	1,3,4,5,6,8,10,11, 12,13,14,18,19,20(14)	.88
	흥미요인	1 ~ 6(6)	1,3,4,5,6(5)	
	건강요인	7 ~ 11(5)	8,10,11(3)	
	사교요인	12 ~ 16 (5)	12,13,14(3)	
	인정요인	17 ~ 20 (4)	18,19,20(3)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전체	1 ~ 19(19)	1,2,3,4,7,9,10,11, 12,17,18,19(12)	.88
	일상생활서비스	1 ~ 8(8)	1,2,3,4,7(5)	
	의료서비스	9 ~ 12(4)	9,10,11,12(4)	
	시설환경서비스	13 ~ 19(7)	17,18,19(3)	
즐거움	전체	1(4)	1(4)	.89
	즐거움1	1(1)	1(1)	
	즐거움2	1(1)	1(1)	
	즐거움3	1(1)	1(1)	
	즐거움4	1(1)	1(1)	
행복	전체	1 ~ 16(16)	1,2,3,4,6,7,8,9,10, 12,15(11)	.83
	긍정행복감	1,2,3,7,9,10, 13,15,16(9)	1,2,3,7,9,10,15(7)	
	부정행복감	4,5,6,8,11,12,14(7)	4,6,8,12(4)	

6.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 및 다중공선성 분석

대상자의 자기조절 정도 평균은 3.52 ± 0.40 점, 여가활동 정도 평균은 3.85 ± 0.35 점,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정도는 평균은 4.17 ± 0.35 점, 즐거움 정도 평균은 5.17 ± 0.78 점, 행복 정도 평균은 3.14 ± 0.37 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변수들은 왜도의 절대값이 3.0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7 이하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병렬, 2014). 또한 측정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변수의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조사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66~.80로 0.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20~2.84로 10을 넘는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 및 다중공선성 분석

(N=239)

잠재변인	측정변수	평균±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차한계	VIF
자기조절						
	전체	3.52±0.40	-0.64	1.67	.71	1.27
	주의성	3.45±0.68	-0.72	-0.10	.73	1.38
	집중성	3.47±0.42	-0.22	0.65	.76	1.31
	대인관계	3.64±0.42	-1.16	1.42	.84	1.20
여가활동						
	전체	3.85±0.35	-1.06	2.54	.69	1.46
	흥미요인	3.73±0.48	-1.21	2.90	.46	2.18
	건강요인	3.84±0.42	-0.58	1.71	.43	2.31
	인정요인	3.39±0.42	-0.40	1.69	.84	1.20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전체	4.17±0.35	-0.15	-0.33	.80	1.24
	일상생활서비스	3.92±0.37	0.12	1.71	.83	1.21
	의료서비스	4.52±0.54	-1.28	2.69	.70	1.42
	시설환경서비스	4.24±0.29	0.11	-0.67	.64	1.56
즐거움						
	전체	5.17±0.78	-0.80	1.08	.66	1.52
	즐거움1	5.33±0.97	-1.09	1.54	.50	2.02
	즐거움2	5.14±0.90	-0.45	0.37	.37	2.68
	즐거움3	5.17±0.86	-0.82	1.09	.39	2.59
	즐거움4	5.03±0.84	-0.58	1.00	.35	2.84
행복						
	전체	3.14±0.37	-0.46	0.62		
	긍정 행복감	3.34±0.59	-0.57	0.78	.75	1.33
	부정 행복감	3.03±0.52	-0.16	0.85	.75	1.33

7. 구조모형의 검증

1) 가설적 모형의 식별

가설적 모형에 있어 모형 식별(model identification)은 모형이 가치 있는 모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모수의 값을 찾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모수에 대해 적절한 값이 구해졌을 때 모형이 식별되었다고 하고, 모형이 식별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정보의 수와 모수의 수가 같은 적정 식별이거나 정보의 수가 모수의 수보다 큰 과대 식별이어야 한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18개로 모형에 포함된 정보의 수 $1/2(15*16)=120$, 추정해야 될 자유모수의 수 80개, 자유도 40개 (120-80)인 과대 식별 모형(over-identified model)으로 나타나 모형 인정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여 모형 식별이 가능하였다.

2) 가설적 모형의 타당성 검증

개념타당성은 잠재변수에 대해 관측변수가 대상자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측정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모든 표준화 회귀 계수값은 0.50 이상으로 개념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집중타당성은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다중의 문항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모든 잠재변수 항목은 0.70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여가활동의 인정요인은 0.48 으로 표준화계수 값이 0.50 미만으로 낮게 나왔지만 0.45 이상이면 부분 개념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6)(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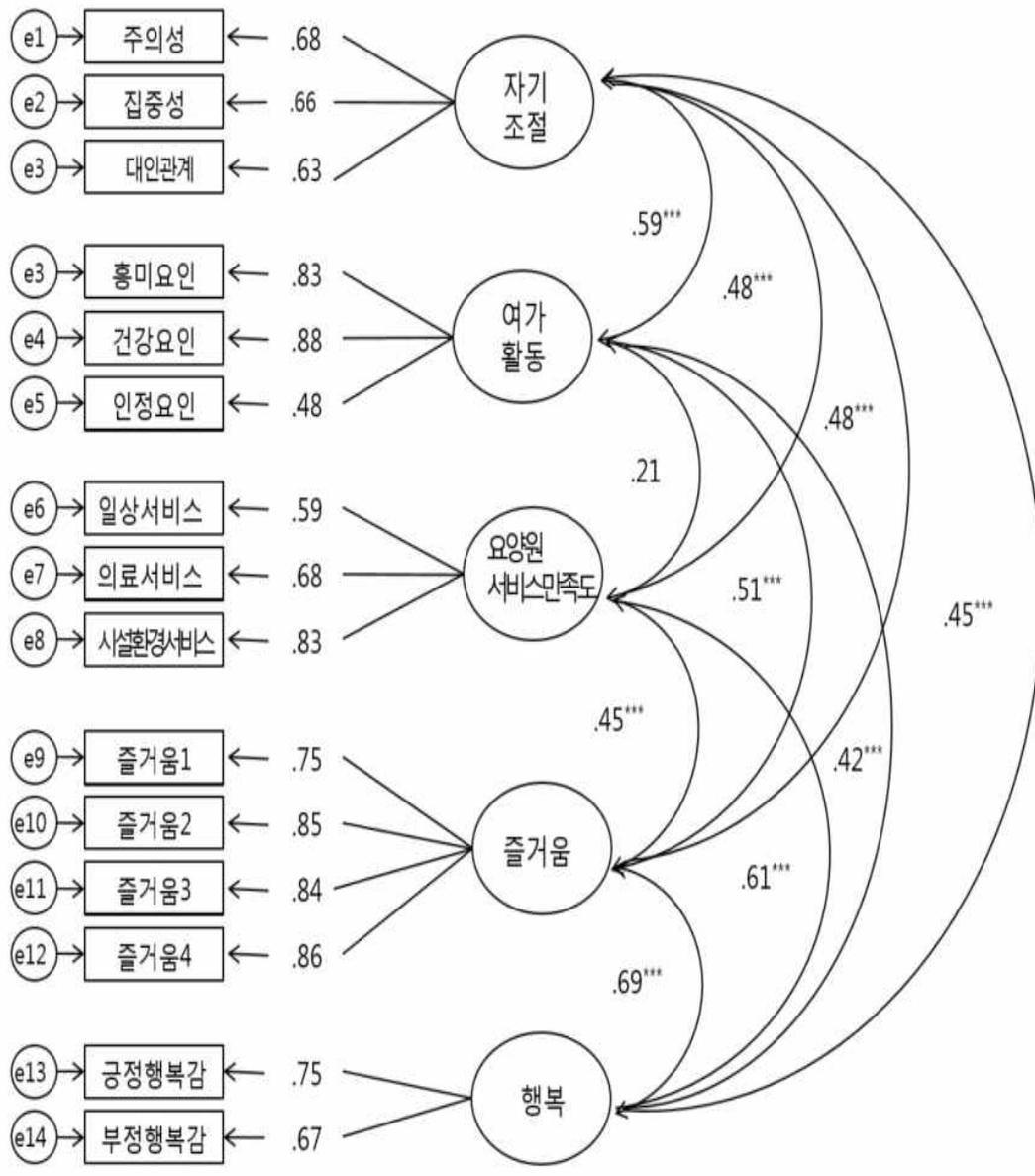
판별타당성은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는 낮아야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상관계수 값의 제곱(r^2)은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모든 상관계수 값의 제곱(r^2)은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을 상회하지 않으므로 판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8). 또한 모형과 자료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하나의 적합도 지수로 결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보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우종필, 2016).

p 값은 χ^2 통계량이 클수록 작아지고 χ^2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와 모형의 복잡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적합한 모형이라도 적합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χ^2 통계량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연구의 측정모형은 χ^2 통계량의 p 값 이외의 다른 적합도 지수가 권장하는 수준에 부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우종필, 2016).

확인적 요인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집중타당도와 법칙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집중타당도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이 제대로 된 개념과 정의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표준화 계수가 0.50 이상일 때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16).

법칙타당성은 잠재변수 간의 가설적 관계의 방향이 실제 자료에서 얻은 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는 정(+)의 방향으로 예측하였다. 실제 결과에서는 예측한 방향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칙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그림 4).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잠재변수의 측정모형

표 7. 잠재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성 분석

(N=239)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화 계수(β)	개념 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 지수(AVE)
자기조절	주의성	.68	.79	.55
	집중성	.66		
	대인관계	.63		
여가활동	흥미요인	.83	.85	.68
	건강요인	.88		
	인정요인	.48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일상서비스	.59	.83	.63
	의료서비스	.68		
	시설환경서비스	.83		
즐거움	즐거움1	.75	.94	.80
	즐거움2	.85		
	즐거움3	.84		
	즐거움4	.86		
행복	긍정 행복감	.75	.77	.63
	부정 행복감	.67		

CR=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표 8.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및 평균분산추출지수 (N=239)

	자기조절	여가활동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즐거움	행복
	r (p)	r (p)	r (p)	r (p)	r (p)
자기조절	.55				
여가활동	.59***	.68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48***	.21*	.63		
즐거움	.48***	.51***	.45***	.80	
행복	.45***	.42***	.61***	.69***	.63

* $p < .05$, ** $p < .01$, *** $p < .001$, 대각선 행렬은 평균분산추출지수

3)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는 최대우도추정법(ML)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 = 184.57$ (df=2.31, $p < .001$), 적합지수(GFI)=.91, 조정적합지수(AGFI)=.87, 표준적합지수(NFI)=.89, 비교적합지수(CFI)=.93, 잔차평균제곱근(RMR)=.02, 근차오차평균제곱이중근(RMSEA)=0.7로 나타났다. χ^2 통계량의 p 값은 .05보다 커야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지만, χ^2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와 모형의 복잡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χ^2 통계량이 유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적합도가 낮다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적합도들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χ^2 관찰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크기와 표본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 [NC])인 χ^2/df 값이 3미만인 경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p 값 이외의 다른 적합도 지수가 권장기준을 만족하여 가설적 모형의 구성 타당도는 확인되었다.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기준 측정변수와 잠재변수를 유지하면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 값을 이용하여 오차항 간의 공분산을 연결하는 수정 지수를 이용한 공분산 연결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MI값이 4보다 크면 두 변수 사이의 공분산 연결을 허용하고 있

다. 조정적합지수(AGFI)는 일반적으로 .9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하지만 본 연구의 .85이상이면 양호하다고 간주한다(우종필,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I값을 이용하여 건강요인과 일상서비스의 오차항(MI=7.38), 긍정행복감과 즐거움4의 오차항(MI=6.84)간은 공분산으로 경로를 추가하여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나,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차이가 없었으며, 적합도 지수가 권장기준을 충족하여 모형 수정 없이 가설적 모형을 구조모형으로 최종 확정하였다(표 9).

표 9.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N=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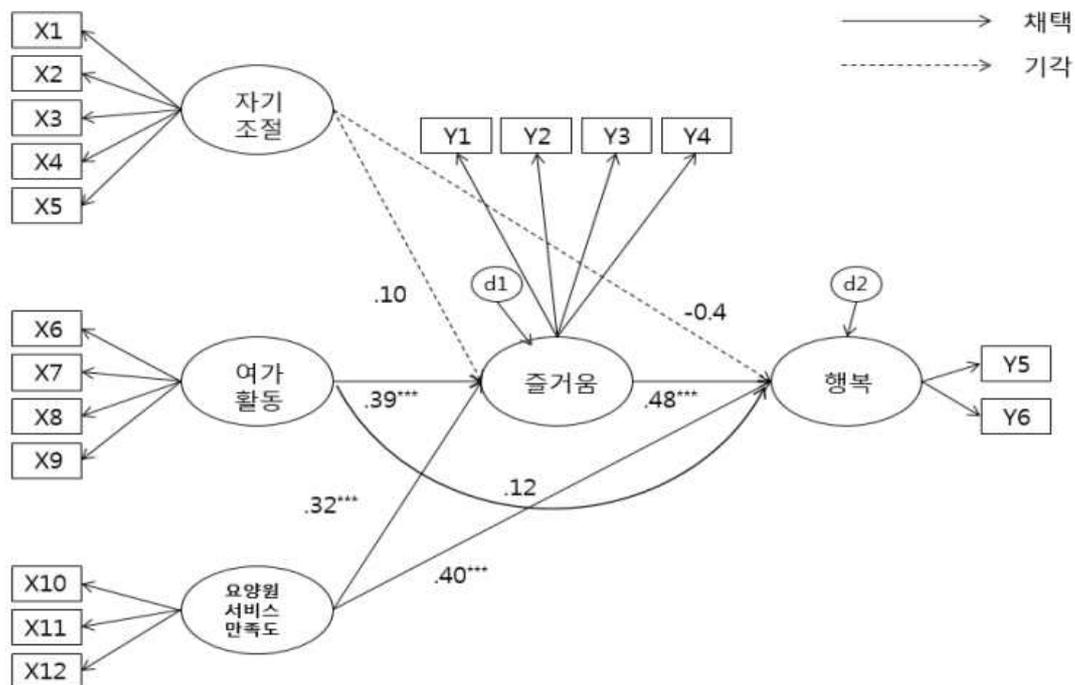
적합도	$\chi^2(p)$	χ^2/df	GFI	AGFI	NFI	CFI	RMR	RMSEA
가설적 모형	184.57 ($p < .001$)	2.31	.91	.87	.89	.93	.02	.07
수정 모형	165.07 ($p < .001$)	2.12	.91	.87	.90	.94	.02	.07
최적 기준치	$p > .05$	< 3	$\geq .90$	$\geq .90$	$\geq .90$	$\geq .90$	$\leq .05$	$\leq .08$

df=degree of freedom;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norm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4)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본 연구는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과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자유모수에 대한 회귀계수,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임계치(critical ratio [CR]), p 값과 내생변수들의 설명력은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1.0을 초과하는 회귀계수는 없었고, 경로분석 결과 총 7개의 경로 중 4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즐거움과 행복과의 경로 계수는 $\beta = -.48(p < .001)$, 요양원 서비스만족도와 행복과의 경로 계수는 $\beta = .40(p = .017)$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행복에 대한 설명력은 60.1%였다. 여가활동과 즐거움와의 경로 계수는 $\beta = .39(p < .001)$, 요양원 서비스만족도와 즐거움과의 경로 계수는 $\beta = .32(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즐거움에 대한 설명력은 39.0%였다(표 10), (그림 5).



X1: 주의성, X2: 침착성, X3: 집중성, X4: 규범성 X5: 대인관계,
 X6: 흥미요인, X7: 건강요인, X8: 사교요인, X9: 인정요인,
 X10: 일상생활서비스, X11, 의료서비스, X12, 시설환경서비스,
 Y1: 즐거움1, Y2: 즐거움2, Y3: 즐거움3, Y4: 즐거움4,
 Y5: 긍정행복감, Y6: 부정행복감.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5. 구조모형의 경로

표 10.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N=239)

내생변수	외생변수	비표준 준화 계수 (B)	표준 화계 수 (β)	표준 오차 (SE)	임계치 (CR)	p	다중상 관자승 (SMC)
즐거움	자기조절	0.27	0.10	0.31	0.87	.387	
	여가활동	1.50	0.39	0.40	3.75	<.001	.390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0.65	0.32	0.17	3.76	<.001	
행복	자기조절	-0.08	-0.04	0.22	-0.35	.726	
	여가활동	0.30	0.12	0.67	1.11	.265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0.50	0.40	0.13	3.77	<.001	.601
	즐거움	0.30	0.48	0.06	4.91	<.001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5) 구조모형의 직·간접 및 총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와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직접효과가 유의한 경로를 살펴보면, 즐거움($\beta=.48, p=.010$), 요양원 서비스만족도($\beta=.40, p=.005$)는 행복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beta=.39, p=.002$), 요양원 서비스만족도($\beta=.32, p=.014$)는 즐거움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 외에 간접효과 추가되어 영향력이 변화된 경로를 살펴보면, 여가활동($\beta=.18, p=.002$), 요양원 서비스만족도($\beta=.15, p=.005$)는 행복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구조모형의 직·간접 및 총 효과 분석 (N=239)

내생변수	외생변수	직접효과 $\beta(p)$	간접효과 $\beta(p)$	총 효과 $\beta(p)$
즐거움	자기조절	.10(.455)		.10(.455)
	여가활동	.39(.002)		.39(.002)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32(.014)		.32(.014)
행복	자기조절	-.04(.915)	.05(.372)	.01(.915)
	여가활동	.12(.289)	.18(.002)	.30(.020)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40(.005)	.15(.005)	.55(.005)
	즐거움	.48(.010)		.48(.010)

8.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연구가설 중 5개의 가설이 직·간접효과로 지지되었고, 2개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즐거움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자기조절은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2. ‘여가활동은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 3.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2) 행복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자기조절은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5. ‘여가활동은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 6.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 7. ‘즐거움은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V. 논의

본 연구는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형을 기반으로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요인들 간의 직·간접 영향력에 관한 가설적 모델을 구축하고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 성격특성의 자기조절, 생활사건으로 여가활동과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심리적 과정으로 즐거움을 매개변수로 적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요양원 서비스만족도이었고, 여가활동은 즐거움을 매개변수로 간접적으로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가활동,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즐거움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60.1%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세운 가설 7개 중 5개의 가설이 지지되어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생활사건으로 여가활동과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즐거움을 매개로 하여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성격특성의 자기조절은 심리적 요인의 과정을 통해 행복을 향상시킬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행복에 직,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요양원 서비스 만족도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즐거움과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여가활동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격 특성인 자기조절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정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즐거움과 행복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는 요양원에서는 입소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진경, 황인옥, 오희영, 2009). 또한 요양원 노인은 만성질환과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의존적이고, 순응적인 삶으로 생활하므로 능동적인 삶은 오히려

어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결과(김윤정, 2013)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는 젊은 세대보다 자기조절이 좀 더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이러한 자기조절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불안,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타적이어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은 훈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자기조절이 행복을 증진함을 보고하였다(이지연, 이현주, 2009; Muraven, Baumeister, & Tice, 1999;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요양원 노인의 행복과 자기조절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자기조절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혹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중 하나라는 점에서(Hoyle, 2006), 요양원 노인들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기조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힘이나 에너지 같은 심리적 자원이 필요하다(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고 할 수 있다.

생활사건으로 여가활동은 즐거움을 매개로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가활동에의 참여가 삶의 만족도와 인지하는 행복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미경, 김지은, 2017)와 신체적 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한다(임범규, 조광민, 석부길, 2011; Zabriskie & McCormick, 2003).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은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고(이동현, 김공, 조정권, 2010), 스포츠 또는 아웃도어 활동 참여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므로(Delaney & Keaney, 2005) 여가활동의 참여가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뒷받침 해준다. 국내에서도 즐거움에 대한 서우석(2015)의 연구에서 경제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활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여행 경험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여가활동은 즐거움을 경유할 때에만 행복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반면, 여가활동이 즐거움을 경유하지 않으면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요양원 노인은 여가활동으로 즐거움이 높으면 그 결과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론된다. 또한 여가활동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점은 단순히 여가활동을 늘리는 것만이 행복 증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가시간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즐기느냐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년기의 여가는 ‘생활의 대부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양원내의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노인 여가생활 활성화 기반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요양원 서비스만족이 높을수록 입소노인들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혜숙과 황희숙(2011)의 입소노인 대상 연구에서 시설 서비스만족도는 노인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원에서 서비스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리요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Berta, Laporte, & Kachan, 2010). 노인은 잔존능력을 충분히 사용하고,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입소 노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Onish et al., 2010). 따라서 요양원 직원들은 노인들의 돌봄에 있어 존중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 노인들의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무환경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적 과정의 즐거움에 대한 설명력은 39.0%이었으며, 두 번째로 행복에 큰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어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요양원 노인의 심리적 과정에서 즐거움은 행복의 매개효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Jose 등(2012)의 즐거움의 향유하기는 긍정적 사건과 행복감의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긍정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향유하는 노력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즐거움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심리적 경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

으킨다(최성범, 김호순, 2009). 이러한 즐거움은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및 지속적인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인식을 바꾸어 즐거움을 통한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상천, 2016). 이에 요양원 노인들의 삶의 심리적 과정의 즐거움을 위해 노인들은 개인 자질과 능력에 맞는 것을 한두 가지 골라 동적인 일과 정적인 일을 번갈아 가며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요양원 이용 특성에 따른 차이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특성이 행복을 설명하는 모형구축에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관한 모형검증 연구에 대상자의 일반적인 이용 특성에서 유의한 요인들을 추가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형을 적용하여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통합적 설명모형에서 제시된 여가활동,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즐거움은 행복으로 가는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에서 간과해왔던 즐거움이라는 심리적 변인이 요양원 노인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규명하였고,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요양원 노인의 행복과 즐거움이 항상 동일한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독립적 영향관계에 있음을 고찰한 것이다. 또한 통합적 설명모형의 삶의 여건과 경험에 있어 요양원 서비스만족이 행복에 직접적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즐거움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보인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여가활동은 행복에 직접효과는 없으나 즐거움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행복과 즐거움이 반드시 동일한 차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했음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요양원 입소노인의 경우에는 자기조절의 수준이 반드시 즐거움과 행복의 핵심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기조절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즐거움과 행복의 긍정적 요인이 되지만, 요양원 입소노인에 있어 그 차이와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들 노인에게는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여가활동과 서비스만족들이 요양원 노인 개인의 특성보다 그들의 즐거움과 행복감에 더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이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긍정 심리학의 통합적 설명 모델을 기반으로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종합하여 다차원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에서 간과해왔던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규명하였고, 그 영향력은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통합적으로 설명하여 행복 연구의 이론 구축에 기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간호연구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대해 긍정적인 심리적 과정이 중요할 뿐 아니라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파악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구조모형의 분석으로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설명력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긍정 변인들을 활용한 간호연구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실무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수를 검증함으로써 간호실무에서 요양원 노인의 서비스만족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연구대상자 표집시 대상자를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추후 다른 지역까지 확대된 연구를 들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적용한 일부 도구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어 요양원 노인에게 차별화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요양원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분석을 통한 도구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설명모델에 근거하여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 자기조절, 여가활동,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즐거움을 변수로 구축한 가설적 모형은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여 받아들여졌으며, 이 모형의 변수들은 행복을 6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요양원 서비스만족도이고, 여가활동은 즐거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격특성의 자기조절은 심리적 요인의 과정을 통해 행복을 향상시킬 수 없었는데, 이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즐거움과 행복의 긍정적 요인이 되지만, 요양원 입소노인에 있어 그 차이와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는 여가활동과 요양원 서비스만족도는 중요한 변수였으며, 즐거움을 매개로 노인의 행복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요양원 노인의 자기조절 향상을 위한 긍정적 정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른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과정의 변수인 즐거움은 생활전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입소 동료들과 함께 잔존능력을 고려한 활동을 경험하여 이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개인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을 번갈아가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중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긍정심리의 성격특성 중 자기조절 변수는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긍정변수들을 포함한 구조모형을 정련화 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중재 개발의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여가활동, 즐거움은 요양원 노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추후에 적용 가능한 도구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연욱. (2006). 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의 노인
 기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5(2), 1-12.
- 강은경. (2013). 노인의 감정조절능력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고진경, 황인옥, 오희영. (2009).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입소초기 경험.
한국노년학, 29(2), 477-488.
- 권석만. (2009). **긍정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금기윤. (2011).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만족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경배. (2017). 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 만족의 매개효과.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경식, 이루지. (2011). 한국인의 여가 활동과 여가만족 및 행복, **한국콘텐츠
 학회**, 11(11), 424-433. doi:10.5392/JKCA.2011.11.11.424
- 김계수. (2013). **Smart PLS 이용 쉬운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도서출판
 청람.
- 김동성. (1998).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형태와 입소노인의 생활만족
 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 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문숙. (2013). 기독교인의 행복에 대한 통합모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문실, 이승희. (2008).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구조-과정 측면의 질 평가. **간호행정학회지**, 14(2), 131-143.
- 김미경, 김지은. (2017). 노인들이 여가제약이 여가만족 및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32(8), 91-109. doi:10.21719/IJTMS.32.8.5
- 김세영. (2016).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 **지역사회간호학회**

지, 27(3), 242-253. doi:10.12799/jkachn.2016.27.3.242

- 김영남. (2012). **미로 체험의 재미, 플로우, 즐거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옥자. (2017). 다문화 가정 중학생들의 뉴 스포츠 활동에 따른 신체적 즐거움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체육수업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체육과학회지**, 26(4), 293-303.
- 김윤정. (2013). **여성노인이 사회적 관계에 따른 여가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은성, 안현균, 조남기. (2015). 남자 고등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정도와 비만도 및 체력 그리고 정신건강의 관계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0(2), 211-220.
- 김의철, 김명언, 박영신, 유호식, 이건우. (2000). 청소년, 성인, 노인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인, 신학진. (2009).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만족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9(2), 579-591.
- 김정미, 채경선. (2018). 노부모의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 및 효과연구,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5(1), 229-249.
- 김정현, 전미애. (2018). 노년기 연령집단에 따라 사회활동 유형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38(2). 1-21.
- 김종순, 오세숙, 윤소영. (2016). 20-40대 직장여성의 일과 여가 그리고 행복의 관계. **여가학연구**, 14(4), 67-85.
- 김종임. (2015).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삶의 질 예측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16(7), 4656-4667. doi:10.5762/KAIS.2015.16.7.4656
- 김현미. (2013). **독거노인의 자기통제감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남은영, 이재열, 김민혜. (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1-33.
- 남현주, 이현지. (2005). 여성 노인이 지각하는 통제감이 우울감과 만족도에

-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7(1), 255-277.
- 노미라. (2007). **여가활동 참가노인들의 재미요인과 몰입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노용구, 이철원, 박선기, 오세이, 이주연, 김영재 등. (2008). **여가학총론**. 서울: 레인보우북스.
- 대한노인병학회. (2005). **노인병학**. 서울: 고려의학.
- 박미석. (2004).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선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107-122.
- 박민정, 서은영, 이정면. (2013).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적 요구에 대한 간호직 종사자들의 관리경험. **성인간호학회**, 25(4), 409-421. doi:10.14729/converging.k.2018.6.4.87
- 박상천. (2016). 문화콘텐츠의 “즐거움”와 “재미”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60, 139-163.
- 박선영. (2007). **무료양로시설 거주노인의 시설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박선희, 김정. (2015). 독거노인의 행복감 경험.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 9(4), 393-402. doi:10.21184/jkeia.2015.12.9.4.393
- 박인실, 김영환. (2011). 라인댄스 참여자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3(1), 127-139.
- 박종무, 송창현. (2000). 의료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만족: SERVPERF의 한국적적용. **경영연구**, 8, 185-208.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도서출판청람.
- 백용운. (2016). **노년학개론**. 서울: 공동체.
- 변용만. (2008). **요양시설서비스가 요보호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영신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서우석. (2015). 문화여가활동이 경제적 빈곤층의 행복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9(1), 266-296
- 석소현, 최진이. (2012). 무료 및 유료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

- 는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4(2), 99-108. doi:10.7475/kjan.2012.24.2.99
- 송해룡, 김찬원, 김원재. (2012). 여가-신체활동 참여가 여성노인의 삶의 의미, 낙관성 및 행복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12(4), 304-314. doi:10.5392/JKCA.2012.304
- 신동일. (2011). **인센티브 여행, 품질과 만족이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신은영, 이인수. (2002). 고령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사회 속성과 행동양식. **노인복지연구**, 15, 20-35.
- 안병욱. (2017). 여가활동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여가지지, 여가만족, 심리적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6(5), 485-496. doi:10.23949/kjpe.2017.09.56.5.35
- 오현옥. (2011). 여가스포츠 참여 노인의 자기조절, 활력, 낙관성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5(1), 637-646.
- 우종필. (2016).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윤명숙, 이묘숙. (2012). 노인이 경제 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2(2), 397-413.
- 이귀옥. (2013). 여가프로그램 참여 노인들의 긍정적 정서, 대인관계, 주관적 행복과의 관계. **노인의료복지연구**, 5(1), 167-1769.
- 이동헌, 김공, 조정권. (2010). 생활체육 참여 노인들의 생활 만족과 여가만족의 상관성에 관한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8, 13-23.
- 이선미, 원지성. (2015). 노인요양원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재이용의사,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8(2), 39-62.
- 이순규. (1994). 자기조절 학습훈련이 아동의 자주적학습태도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이영신. (2013). **임상간호사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구조분석**.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지연, 이현주. (2009). 성인 대상 자기조절 연구의 국내최근 동향 분석. **한**

- 국성인교육학회, 12(4), 83-114.
- 이효정, 양영애. (2012). 정상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6(2) 47-53.
- 임낭연, 신지은, 홍성우, 서은국. (2013). 즐거움은 지지적 정서표현을 유발한다. **감성과학**, 16(2), 221-234.
- 임범규, 조광민, 석부길. (2011). 야구 동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몰입, 여가만족, 생활만족과 심리적 행복감의 경로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0(2), 127-144.
- 임연옥, 윤현순. (2017). 노년기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 사회적 지지, 삶에 대한 통제감, 우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2(1), 123-149.
- 임은기, 정태연. (2009). 한국 노인의 행복 요인 탐색과 척도 개발. **한국노년학회**, 29(3), 1141-1158.
- 임지룡. (2015). 기쁘다와 즐겁다의 차이.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129, 23-49.
- 임혜숙, 황희숙. (2011).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54, 237-261. doi:10.21194/kjgsw..54.201112.237
- 장유리, 이정남, 윤현숙, 김수영. (2008). 노년기 자기 통제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노년학회**, 28(4). 1055-1068.
- 장혜경. (1998). **한국 노인의 안녕 척도 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전기숙. (2016). **성격강점에 초점을 둔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전현상. (2016). 활동과 즐거움-아리스토텔레스의 즐거움 이론. **철학논집**, 44, 69-96.
- 조금이, 박현숙. (2011).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12(1), 160-169.
- 조우홍, 이동수. (2008).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40, 1753-196.
- 천덕희. (2013). 연구논문(研究論文): 크루즈여행 체험요인이 여행자의 감정

- 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체험경제 이론과 PA 모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7(9), 185-20.
- 최성범, 김호순. (2009). 해양레저스포츠 참가자의 재미, 몰입경험, 참가 후 지속행동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3(2), 189-199.
- 하은호, 이영휘 (2004). 무료양로시설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6(1), 47-54.
- 허승연. (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홍희영, 최은영. (2017). 긍정심리기반 집단미술치료가 우울 노인의 긍정 심리와 건강 지각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3(4), 359-377.
- 황명진, 심수진. (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한국조사연구학회*, 9(3), 93-117.
- Alexandrova, A. (2005). Subjective well-being and Kahneman's o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3), 301-324. doi:10.1007/s10902-005-7694-x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eister, R. F., Bratslasky, E., Muraven, M., & Tice, D. M. (1998). Ego depletion: Is the active self a limited resou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252-1265.
- Beard, J. G., & Ra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0-33.
- Berta, W., Laporte, A., & Kachan, N. (2010). Unpac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perational efficiency and quality of care in Ontario long-term care homes. *Canadian Journal on Aging*. 29(4), 543-556. doi:10.1017/s0714980810000553
- Blazer, D. G. (2003). Depression in late life: Review and commentary. *Journal of Gerontology*, 58(3), 249-265. doi:10.1093/gerona/58.3.M249

- Bowers, B. J., Fibich, B., & Jacobson, N. (2001). Care-as-service, care-as-relating, care-as-comfort: Understanding nursing home residents' definitions of quality. *The Gerontologist, 41*(4), 539-545. doi:10.1093/geront/41.4.539
- Britton, J. C., Taylor, S. F., Berridge, K. C., Mikels, J. A., & Liberzon, I. (2006). Differential subjective and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to socially and nonsocially generated emotional stimuli. *Emotion, 6*(1), 150-155. doi:10.1037/1528-3542.6.1.150
- Brooke, V. (1989). Nursing home life: How elders adjust. *Geriatric Nursing, 10*(2), 66-68. doi:10.1016/S0197-4572(89)80054-0
- Bryant, F. G., & Veroff, J., (2007). *Savoring: A new model of positive experience*, London: Lawrence Erlbaum.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rstensen, L. L., Isaacowitz, D. M., & Charles, S. T.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3), 165-181. doi:10.1037/0003-066X.54.3.165
- Chao, S., Lan, Y., Tso, H., Chung, C., Neim, Y., & Clark, M. (2008).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daptation among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setting.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6*(2), 149-158. doi:10.1097/01.JNR.0000387300.22172.c6
- Compton, W. C. (2007). **긍정 심리학 입문** [An introduction to positive the psychology]. (서은국, 성민선, 김진주 역). 서울: 박학사. (원전은 2005년에 출판)
- Costa, P, T.,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o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68-678. doi:10.1037/0022-3514.38.4.668

- Delaney, L., & Keaney, E. (2005). *Sport and Social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 Statistical Evidence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Survey Data. London: DCM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doi:10.1037/0033-2909.95.3.542
- Diener, E., Sandvik, E., Pavot, W., & Fujita, F. (1992). Extraver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 US. national probability sample. *Journal of Research and Personality*, *26*(3), 205-215. doi:10.1016/0092-6566(92)90039-7
- Diener, E., Suh, E. M.,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iener, E., &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1*, 185-218.
- Diener, E. (2002). *Th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Oishi, S., et al. (2009). New measures of well-being: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 247 - 266. doi:10.1007/978-90-481-2354-4_12
- Diener, E. (2012). New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for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American Psychology*, *67*(8), 590-597.
- Dumazedier, J. (1974).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Elsevier.
- Fagan, R. M. (2003). Pioneer network: Changing the culture of aging in America. *Journal of Social Work in Long-Term Care*, *21*(2), 125-140.
- Fredrickson, B. L. (2008).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The Royal Society*, *359*(1449), 1367-1377. doi:10.1098/rstb.2

004.1512

- Fredrickson, B. L., & Joiner, T. (2002). Positive emotions trigger upward spirals toward emotional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13*(2), 172-175. doi:10.1111/1467-9280.00431
- Fujiwara, D. (2013). *Museums and happiness: The value of participating in museums and the arts*.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 Grundy, E. (2006). Aging and vulnerable elderly people: European perspectives, *Aging & Society, 26*(1), 105-134. doi:10.1017/S0144686X05004484
- Hanin, V., & Nieuwenhoven, C. (2016). The influence of motivational and emotional factors in mathematical learning in secondary education. *Revue Européenne de Psychologie Appliquée/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66*(3), 127-138. doi:10.1016j.erap/.2016.04.006
- Hidi, S. (2006). Interest: A unique motivational variable. *Educational Research Review, 1*(2), 69-82. doi:10.1016/j.edurev.2006.09.001
- Hoyle, R. H. (2006). Personality and self-regulation: Trait and information-processing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74*(6), 1507-1525. doi:10.1111/j.1467-6494.2006.00418.x
- Jose, P. E., Lim, B. T., & Bryant, F. G. (2012). Does savoring increase happiness? A daily diary study.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7*(3), 176-187. doi:10.1080/17439760.2012.671345
- Kao, H. F., Travis, S. S., & Acton, G. J. (2004). Relocation to a long-term care facility: Working with patients and families before, during, and after.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42*(3), 10-16. doi:10.3928/02793695-20040301-06
- Karoly, P., Ruhlman, L. S., Okun, M. A., Lutz, R. S., Newton, C., & Fairholme, C. (2005). Perceived self-regulation of exercise goals and interfering goals among regular and irregular exercisers: A life space

- analysi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6(4), 427-442. doi:10.1016/j.psychsport.2004.03.004
- Kehyayan, V., Hirdes J. P., Tyas, S. L., & Stolee, P. (2015). Residents' self-reported quality of lif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n Aging*, 34(2), 149-164. doi:10.1017/S0714980814000579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doi:10.1037/0022-006X.47.6.1020
- Kowalski, N. (1981). Institutional relocation: Current programs and applied approaches. *The Gerontologist*, 21(5), 512-519. doi:10.1093/geront/21.5.512
- Kozma, A. & Stone, M. J. (1983).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Gerontology*, 38(5), 626-628. doi:10.1093/geronj/38.5.626
- Leventhal, H., Diefenbach, M., & Leventhal, E. A. (1992). Illness cognition: Using common sense to understand treatment adherence and affect cognition interac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2), 143-163. doi:10.1007/BF01173486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doi:10.1037/0033-2909.131.6.803
- Mainz, J. (2003). Defining and classifying clinical indicators for quality improvement.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15(6), 523-530. doi:10.1093/intqhc/mzg081
- Muravem, M., Baumeister, R. F., & Tice, D. M.(1999). Longitudinal improvement of self-regulation through practice: Building self-control strength through repeated exercis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9(4), 446-457. doi:10.1080/00224549909598404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 Science*, 6(1), 10–19.
- Neupert, S. D., Almeida, D. M., & Charles, S. T. (2007). Age differences in reactivity to daily stressors: The role of personal control.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62(4), 216–225. doi:10.1093/geronb/62.4.P216
- Oh, H., Fiore, A. M., & Jeoung, M. (2007). Measuring experience economy concepts: Tourism applica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6(2), 119–132. doi:10.1177/0047287507304039
- Onishi, C., Yuasa, K., Sei, M., Ewis, A. A., Nakano, T., Munakata, H., et al. (2010).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Japanese elderly women attending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 facilities. *The Journal of Medical Investigation*, 57(1), 69–80. doi:10.2152/jmi.57.69
- Park, N., & Peterson, C. (2009). Achieving and sustaining a good lif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4), 422–428. doi:10.1111/j.1745-6924.2009.01149.x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th, D. (2005). Culture change in long-term care: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5(1), 233–248. doi:10.1300/J083v45n01_14
- Ryff, C. D. (1997). Experience and well-being: Explorations on domains of life and how the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 193–206. doi:10.1080/016502597385289
- Sanders, M. R., & Mazzucchelli, T. G. (2013). The promotion of self-regulation through parenting intervention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6(1), 1–17. doi:10.1007/s10567-014-0173-3.
- Scanlan, T. K., & Simons, J. P. (1992). *The construct of sport enjoyment*. In G. C. Roberts (ed.), *Motivation in sport and*

- exercise*. Champaign, IL: Human Kinetic Publishing Inc.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NY: Free Press.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14).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y, 55*(1), 5-14. doi:10.1007/978-94-017-9088-8_18
- Sin, N. L., & Lyubomirsky, S. (2009). Enhancing well-being and alleviating depressive symptoms with 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 A practice-friendly meta-analy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5*(5), 467-487. doi:10.1002/jclp.20593
- Slegenthaler, K. L. (1996). Leisure and the elderly. *Parks and Recreation, 31*(1), 18-24.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R.(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 272-324. doi:10.1111/j.0022-3506.2004.00263.x
- Torges C. M, Stewart A. J, & Nolen-Hoeksema S. (2008). Regret resolution, aging and adapting to loss. *Psychology and Aging, 23*(1), 169-180. doi:10.1037/0882-7974.23.1.169
- Tremethick, M. J. (2001). Alone in a crowd. A study of social networks in home health and assisted liv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7*(5), 42-47. doi:10.3928/0098-9134-20010501-10
- Wankel, L. M. (1993). The importance of enjoyment to adherence and psychological benefits from physical a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4*(2), 151-169.
- Watkins, P. C. (2004).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psychology of gratitude*, 167.
- Wong, E., Woo, J., Hui, E., & Ho, S. C. (2004). Examination of the

- Philadelphia Geriatric Morale Scale as a subjective quality of life measure in elderly Hong Kong Chinese. *The Gerontologist*, 44(3), 408-471. doi:10.1093/geront/44.3.408
- Zabriskie, R. B., & McCormick, B. P. (2003). Parent and child perspectives of family leisure involvement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5(2), 163-189. doi:10.1080/00222216.2003.11949989
- Zimmerman, D. (2003). Improving nursing home quality of care through outcomes data: The MDS quality indic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s Psychiatry*, 18(3), 250-257. doi:10.1002/gps.820

부 록

(부록 1) 연구동의서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과제명: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관한 구조모형

본 연구는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자기조절, 여가활동, 요양원 서비스 만족도, 즐거움을 관련 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최동숙은 귀하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연구책임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가 이 연구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귀하께서 본 연구 참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요양원 노인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의 행복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요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조사연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는 일개광역시, 일개지자체 에 거주하면서 현재 6개월 이상 요양원에 입소 해 있는 노인을 참여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3. 연구 참여 절차

본 연구는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결정에 따른 서면동의 후 설문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연구이며 연구에 사용될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기조절 20문항, 여가활동

20문항,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19문항, 즐거움 4문항, 행복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30분~ 40분 정도 될 것입니다.

설문은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글을 모르거나 시력저하로 설문지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이 직접 글을 읽어주고 참여자가 질문에 답하면 그 답을 설문지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연구 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연구자는 설문지 회수 시 설문 문항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귀하는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3월 12일부터 4월 7일 자료 수집기간 중 1회 설문에 응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참여 도중에 참여를 그만두거나 거부하고 싶다면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예측되는 부작용과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참여 후에 만약 부작용이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중단 하겠습니다. 연구 참여 도중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며, 이 연구를 통해 행복의 중요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연구에 참여 시 감사의 뜻으로 5,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할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부록 2) 설문지

1. 귀하의 자기조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아 주 그 렇 다	그 렇 다	보 통 이 다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무슨 일을 하기 전, 몇 번씩 심사숙고 한다.	1	2	3	4	5
2*	주의 깊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3*	대답할 때 신중히 대답한다.	1	2	3	4	5
4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다.	1	2	3	4	5
5	일상적인 일들을 잊어버린다	1	2	3	4	5
6	어떤 문제 해결 시 침착하지 못하다.	1	2	3	4	5
7	이것저것 한꺼번에 한다.	1	2	3	4	5
8	일을 할 때 쉽게 주의를 돌린다.	1	2	3	4	5
9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 곧 좌절, 그만둔다.	1	2	3	4	5
10*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일에 집중 한다.	1	2	3	4	5
11	줄을 설 때, 순서를 참고 기다리지 못 한다.	1	2	3	4	5
12	규칙이나 질서를 잘 어긴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잘 가로챈다.	1	2	3	4	5
14	물건을 살 때 즉시 물건을 구매한다.	1	2	3	4	5
15	갖고 싶으면 당장 갖고 싶어 못 참는다.	1	2	3	4	5
16*	질문 후, 대답을 기다린다	1	2	3	4	5
17*	친구들과 이야기 시, 내 차례를 기다린다.	1	2	3	4	5
18	활동 시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하지 않아도 끼어들고 싶어 참지 못한다.	1	2	3	4	5
19*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5
20*	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 역문항

2. 귀하의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여가활동은 재미가 있는 편인가요?	1	2	3	4	5
2	지금 참가하시면서 실력이 향상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1	2	3	4	5
3	매시간 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시거나 하시나요?	1	2	3	4	5
4	지금 참가하고 있는 활동을 하시면서 흥분되시나요?	1	2	3	4	5
5	지금 참가하고 있는 활동이 재미있게 진행이 되시나요?	1	2	3	4	5
6	강사나,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에 드시나요?	1	2	3	4	5
7	지금 참가하고 있는 활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시나요?	1	2	3	4	5
8	지금 참가하고 활동을 하실 때 강도 높게(또는 집중해서) 하시는 것이 좋으신가요?	1	2	3	4	5
9	지금 참가하고 있는 활동이 적성에 잘 맞으시나요?	1	2	3	4	5
10	지금 참가하고 있는 활동을 하시면 건강해져서 좋으신가요?	1	2	3	4	5
11	지금 참가하고 있는 활동을 하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하시나요?	1	2	3	4	5
12	지금 참가하고 있는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사람을 접하게 되어 좋으신가요?	1	2	3	4	5
13	지금 참가하고 있는 활동을 하시면서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나요?	1	2	3	4	5
14	지금 참가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친구를 많이 사귀셨나요?	1	2	3	4	5
15	지금 참가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만나신 친구들은 진실하신가요?	1	2	3	4	5
16	지금 참가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에게 도움 받으신적이 있으신가요?	1	2	3	4	5
17	주위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줄 때 기분이 좋으신가요?	1	2	3	4	5
18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잘하게 되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1	2	3	4	5
19	지금 참가하고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멋있어 보여서 좋으신가요?	1	2	3	4	5
20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하셔서 좋으신가요?	1	2	3	4	5

3. 귀하의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질문입니다.

문항		매우 좋지않음	좋지않음	보통이다	좋음	매우 좋음	
일상생활서비스	1	직원들의 친절	1	2	3	4	5
	2	식사서비스(양과 질, 시간)	1	2	3	4	5
	3	식단선택	1	2	3	4	5
	4	직원의 청소서비스	1	2	3	4	5
	5	생필품 구매	1	2	3	4	5
	6	직원의 세탁서비스 제공	1	2	3	4	5
	7	목욕보조서비스	1	2	3	4	5
	8	상담에 대한 직원의 친절도	1	2	3	4	5
의료서비스	9	정기적인 건강검진	1	2	3	4	5
	10	지역 병원과 잘 연계됨	1	2	3	4	5
	11	약 관리서비스	1	2	3	4	5
	12	신체기능훈련 등 재활 및 물리치료	1	2	3	4	5
시설환경서비스	13	요양원 전체의 분위기	1	2	3	4	5
	14	요양원의 청결도	1	2	3	4	5
	15	거실의 난방설비	1	2	3	4	5
	16	여가시설 이용	1	2	3	4	5
	17	요양원 내 편의시설(예: 복도손잡이, 미끄럼받이 등)	1	2	3	4	5
	18	요양원의 안전시설(예: 야간 상용등, 비상벨)	1	2	3	4	5
	19	요양원에서 안내표지판	1	2	3	4	5

4. 귀하의 즐거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아 니 다	그 저 그 렇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요양원생활은 전반적으로 즐거운 경험이다	1	2	3	4	5	6	7
2	요양원생활은 만족스럽고 유쾌한 기분이 든다	1	2	3	4	5	6	7
3	요양원생활은 전반적으로 흥미롭다	1	2	3	4	5	6	7
4	요양원생활은 전반적으로 신나는 일이 많다	1	2	3	4	5	6	7

5. 귀하의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그 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세상이 온통 내 것 같았다	1	2	3	4	5
2	기분이 좋았다	1	2	3	4	5
3	특별히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4*	지루했다	1	2	3	4	5
5*	매우 외로웠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가 있었다	1	2	3	4	5
6*	내 인생길은 험난했다	1	2	3	4	5
7	일반적으로 나의 인생의 길은 만족스럽다	1	2	3	4	5
8*	지금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울적한 시기이다	1	2	3	4	5
9	나는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1	2	3	4	5
10	내 인생을 되돌아 볼 때 매우 만족스럽다	1	2	3	4	5
11*	나이를 먹음에 따라 모든 것들이 나빠지고 있다	1	2	3	4	5
12*	외롭게 느껴진다	1	2	3	4	5
13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	1	2	3	4	5
14*	나는 때때로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15	현재 나의 인생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6	내 건강은 내 연령층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훨씬 더 좋다	1	2	3	4	5

* 역문항

6.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어르신의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 2) 어르신의 연령? (만 세)
- 3) 어르신의 학력?
① 무학/서당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이상
- 4) 현재 어르신의 배우자는 살아계십니까?
① 현재 살아 계심 ② 사별 또는 이혼
- 5) 어르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무교 ② 불교
③ 기독교 ④ 천주교
- 6) 어르신의 요양등급은?
① 1,2등급 ② 3등급
- 7) 어르신께서 요양원에 입소하시기로 결정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 ② 돌봐 줄 사람이 없어 노후를 위해
- 8) 어르신의 서비스 이용료를 주로 부담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① 본인 및 배우자 ② 자녀들 공동부담
③ 정부지원
- 9) 어르신께서 이곳에 계신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 어르신 가족 분들의 평균 방문 횟수는?

- ① 매일 ② 주 1회 이상 ③ 월 1회 이상 ④ 연 1회 이상

11) 질병이 있다면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 * 중복응답 가능

- ① 고혈압 ② 뇌졸중 ③ 당뇨병 ④ 관절염
 ⑤ 호흡기계 ⑥ 심장질환 ⑦ 백내장/녹내장 ⑧ 소화기질환
 ⑨ 전립선비대 ⑩ 우울증 ⑪ 암 ⑫ 기타 ()

12) 어르신은 하루에 몇 시간을 여가활동에 참여하십니까?

- ① 1시간 이내 ② 1시간~2시간 ③ 3시간 이상

13) 어르신은 실제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을 위해서 ② 취미와 오락으로
③ 사회적 친교를 위해 ④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14) 여가활동은 누구와 주로 하십니까?

- ① 동료 ② 직원 ③ 혼자 ④ 기타()

15) 어르신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 건강, 스포츠활동 ② 오락, 사교활동 ③ 봉사, 종교활동

16) 여가활동을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없고 흥미없어 사치같음 ② 건강허약
③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④ 가족반대

(부록 3) 공고문

7. 연구 대상자 모집 공고문 1

연구 대상자 모집 공고	
연구목적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요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u>설문조사</u> 연구입니다.
참여대상	1. 요양원에 오신지 6개월 이상 된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2. 설문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참여에 동의하고 서명한 분
참여기간	2019년 3월 12일~4월 7일 중
참여장소	OO요양원 1층 로비
연구자	담당자: 최동숙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연락처: 010-3***-9***
참여조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명문과 동의서를 신중히 검토 후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히고 설문 동의서에 서명한 자
참여방법	참여자는 배부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을 모르거나 시력저하로 설문지를 읽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연구원이 직접 읽어주고 참여자가 질문에 답하면 그 답을 설문지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
참여혜택	설문 작성 완료 후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답례품 제공 (5,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 각 티슈와 수면양말)
<p>참여를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소정의 다과와 음료를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p> <p>장소: OO요양원 1층 로비</p> <p>※ 이 연구는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p>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Nursing Home Elderly's Happiness

Choi, Dong Sook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Byoung Sook)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nstruct and validat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nursing home elderly's happiness. The hypothetical model was based on an integrated description model of happiness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major variables included the four variables: self-regulation, leisure activities, nursing home service satisfaction, and enjoyment.

The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239 elderlies aged 65 or older, who have been hospitalized for more than six months at nursing homes located in one metropolitan city and one local government. The survey was done from March 12 to April 7, 2019.

Ultimately, a total of 239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 WIN 22.0 to examine subject character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jor

variables, multicollinearity, and correlation. AMOS 22.0 was used to validat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hypothesis fit, and research hypothesis.

In the structural model, five out of seven pathways were adopt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at five out of seven research hypotheses was identified to hav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for the happiness of the elderly at nursing homes were represented with nursing home service satisfaction, enjoyment and leisure activities.

Of the three, variables with nursing home service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followed by enjoyment and leisure activities with their explanation level of 60.1%.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for the enjoyment of nursing homes included leisure activities and nursing home service satisfaction.

In conclusion, it has been shown that for the nursing home elderly's happiness the service satisfaction of nursing homes and leisure activities were vital with enjoyment enforced by experiencing happy moments.

Therefore, it required to take these three variables into consideration.
when seeking promotion ways and mediating strategies for the
happiness of the nursing home elderly.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관한 구조모형

최 동 숙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교수 이 병 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델은 행복에 대한 통합적 설명모델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자기조절, 여가활동,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및 즐거움이었다.

자료수집은 일개 광역시와 일개 지자체 소재의 요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소한 자료 65세 이상의 노인 총 239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9년 3월 12일부터 4월 7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특성,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 다중공선성,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AMOS 22.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 7개의 경로 중 5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채택되었고, 7개의 연구가설 중 5개의 가설이 직, 간접효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요양원 노인의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요양원 서비스

만족도, 즐거움, 여가활동이었다. 그 중 요양원 서비스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즐거움, 여가활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복에 대한 설명력은 60.1%였다. 요양원 노인의 즐거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여가활동과 요양원 서비스만족도였다.

결론적으로,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요양원 서비스만족도, 여가활동이 중요하며, 즐거움은 기쁜 순간들을 경험할수록 더 행복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요양원 노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과 중재 전략을 모색하고자 할 때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